

현대 사회 불평등 연구

: 개념과 연구 프로그램

신광영*

초록

이 논문은 현대 사회의 불평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주요 이론적 이슈를 다룬다. 불평등은 사회적 구조와 제도에서 형성된 산물로, 차등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을 통해 설명된다. 주요 불평등 유형은 경제적 불평등, 젠더 불평등, 인종 불평등, 건강 불평등, 환경 불평등으로 나뉜다. 이들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불평등 요소들은 계급, 젠더, 인종 간의 교차와 인과적 연계성을 통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불평등 체제의 누적적 효과는 세대 간 이동성을 저해한다. 세계화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불안과 극우 정치의 부상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불평등 연구가 복합적 인과 관계와 교차성을 탐구하고, 궁극적으로 학술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 용어: 불평등, 교차성, 연계성, 누적적 불평등, 건강의 사회적 결정, 인과성

*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E-mail: kyshin@cau.ac.kr)

투고일: 2024.12.27. / 수정일: 2025.1.23. / 게재확정일: 2025.1.27.

I. 서론

역사적으로 불평등은 근대에 들어서 발견되었다. 장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에서 불평등을 자연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인간이 만든 제도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불평등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이후 다양한 이론가들이 불평등을 사회제도의 산물로 다루어왔다. 그 중에서도 칼 맑스(Karl Marx)의 <자본론>(1867)과 막스 베버(Max Weber)의 <경제와 사회>(1922)는 각각 생산체제와 시장체제가 계급 불평등의 토대라는 주장을 폈다. 젠더 불평등은 프랑스 혁명 직후 영국의 메리 울스턴그래프트(Mary Wollstoncraft)가 <여성의 권리 옹호>(1792)에서 루소를 비판하면서, 여성이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교육과 법적 권리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여성은 종속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주장하여, 여성 차별을 고발하였다. 여성의 배제와 차별에 대한 논의는 전후 시몬느 드 보바르(Simone de Beauvoir)의 <제2의 성>(1949)에 의해서 다시 새롭게 발견되었다. 젠더 불평등이 20세기 후반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지만, 이제 젠더 불평등은 국내외 통계의 핵심 지표가 되었다. 2023년에는 여성주의 경제학자 클로디아 골딘(Claudia Goldin)은 노벨경제학상까지 수상하였다. 인종 불평등은 1990년대 들어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90년대 말부터 인종주의가 새로운 학술적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인종 불평등에 대한 연구가 21세기 새롭게 부각되었다. 인종 차별과 인종주의 이데올로기가 근대 이전부터 사회제도와 문화 속에서 작동하였지만,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과 이론적인 논의는 아주 최근에 이루어졌다.

계급, 젠더, 인종에 기반한 불평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학술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정치적 쟁점도

되지 못했다. 토마스 모어(Thomas More)가 평등한 세계를 그린 <유토피아>(1517)에서도 노예와 하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토마스 모어의 평등 논의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유토피아에는 왕과 귀족을 포함한 지배층에 대한 비판은 담겨있지만, 노예와 하인의 부자유와 착취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불평등은 인류 역사상 생산력이 가장 발전한 21세기 그리고 동유럽 국가 사회주의가 붕괴되어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된 세계화 시대에 학술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새롭게 부각되었다. 오늘날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불평등 현실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이론적인 논의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반 대중의 인식과 경험적 연구자들 사이에는 간극이 있지만,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불평등 현실은 일반 대중의 인식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발견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자산소득 증가율이 임금소득 증가율보다 커서 지속적으로 자산 소유자에게 부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사이몬 쿠즈네츠가 제시한 산업화와 불평등 역U자형 곡선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핵심적인 원인은 자산의 수익률이 노동의 수익률(=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아서 지속적으로 상위 집단으로 부가 집중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Piketty, 2013).

이 논문은 불평등에 관한 개념적인 논의를 새롭게 정리하고 불평등 연구와 관련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불평등을 연구하는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리고 학술적인 불평등 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로 다른 네 가지 불평등과 관련된 개념(불평등, 격차, 집중, 양극화)을 살펴본다. 그리고 4가지 불평등 개념은 서로 다른 정책적 함의를 지니고 있음을 논의한다. 그 다음, 불평등 논의에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점은 '무엇의 불평등인가'와 관련이 있는 불평등의 내용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불평등은 끊임없이 새롭게 발견되고 있

다. 가장 일반적인 임금 불평등에서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 그리고 생활세계의 불평등(주거 불평등, 신용 불평등과 건강과 수명 불평등)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과 재난 불평등으로 불평등의 논의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다음 불평등의 현실과 인과적 논의에서 등장하는 교차성과 연계성 개념에 대해서 논의한다. 사회적으로 구조적 불평등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계급, 젠더와 인종과 같은 요소들이 상호 교차하면서 복합적인 불평등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다양한 불평등은 서로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불평등 형성 기제를 밝히는 작업은 여러 가지 불평등이 어떻게 서로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의 의미를 다시 논의하고 이 논문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대단히 중요한 이슈를 언급한다.

II. 개념적 논의

1. 불평등 접근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크게 차등적 접근(gradational approach)과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다(Wright, 2005). 두 가지 접근은 사회적 차원에서 불평등 현실과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기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먼저, 차등적 접근은 불평등을 정도의 차이나 양적인 차이로 보고, 소득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접근한다(Piketty, 2013; Sen, 1973; Atkinson, 2015). 예를 들어, 차등적 접근은 집단을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한다던가 혹은 소득 분위별로 구분하거

나 상위소득 계층으로 소득과 부가 집중되는 것을 양적으로 다루는 접근이다.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최하층의 빈곤 연구가 많았고, 피케티와 같이 최상층 부의 집중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차등적 접근 중에서도 소득 대신에 역량(capability)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센(Amartya Sen)은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를 넘어서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역량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경우도 있다. 보행이 어려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장애로 인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좁은 의미의 물질적 불평등을 넘어서 역량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우,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가 불평등 논의에 포함될 수 있다.

관계적 접근은 불평등을 사회 집단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인식한다. 사회적 관계는 집단 사이에 자원을 둘러싼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내재하고 있으며, 불평등의 원천은 이러한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라고 본다 (Avent-Holt & Tomaskovich-Devey, 2019; Bourdieu, 1986; Fraser, 1997; Parkin, 1979; Wright, 1997). 관계적 접근은 사회적 관계의 속성으로 착취(Wright, 1997)나 지배와 배제(Parkin, 1979)를 통해서 기회와 보상에 대한 불평등이 나타난다고 본다. 양적인 차이로서의 불평등은 교육, 연령, 숙련도와 같은 개인적인 속성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착취적 관계나 조직적 배제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쟁점이 되는 불평등은 고용주-피고용자 사이의 계급 불평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에서 발생하는 '위치적 불평등(positional inequality)'이라고 본다. 또한 전문직 직종 종사자들은 제도화된 권력을 통해서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의 공급을 통제하여 독점적인 혜택을 누린다고 본다. 권력과 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불평등에 관한 관계적 접근은 계급 관계 이외에도 젠더 관계, 인종 관계와 중심부-주변부 관계를 포함하는 불평등 연구로 계속 확장되었다.

2. 불평등의 의미

불평등은 문자 그대로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만물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불평등은 편재한다고 볼 수 있다.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아니라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통해서 혹은 공정하지 못한 사회제도로 인해서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에 불평등이 문제가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가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달라졌고 또 사회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쟁점이 되는 불평등은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네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네 가지는 차이(difference), 격차(gap), 집중(concentration), 극화(polarization)이다(신광영, 2022). 먼저, 불평등은 논의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구성하는 단위들 사이의 차이를 의미한다. 개인이 단위가 되는 임금이나 가구가 단위가 되는 가구소득의 차이를 임금 불평등이나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보는 경우이다. 불평등 논의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가구는 개인과는 다른 불평등의 단위라는 점에서 임금 불평등 논의와 가구소득 불평등 논의는 서로 다른 차원의 불평등 논의이다. 대표적으로 지니계수는 집단에 속하는 모든 분석 단위들 사이의 차이를 바탕으로한 불평등 측정 지수이다(Gini, 1912; Cowell, 2011; OECD, 2008).

두 번째 불평등 의미는 격차이다. 격차는 주로 집단 간 격차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계급, 소득계층, 젠더, 지역 등 사회정치적 범주를 단위로 하여 집단 간 불평등을 분석한다. 노동계급과 중간계급의 소득 격차, 상위 10분위(p90)의 소득과 하위 90분위(p10) 소득 격차(p90/p10), 상위 20%의 소득 점유비율과 하위 20%의 소득 점유 비율(S80/S20), 남녀 임금 격차,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등은 모두 집단을 분석 단위로 하고 집단들 간 평균 임금, 소득, 소득 점유율의 격차를 불평등으로 간주한다. 하위 집단과 상위 집단 간 소득 격차를 보다 분명하

게 보여주기 위하여 소득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 비율로 나눈 값인 팔마 비율(Palma ratio)도 많이 사용된다(예, 김유선, 2022). 일본에서는 이러한 용법과 무관하게 불평등한 일본 사회를 통칭하여 격차사회(格差社会)라고 부르기도 한다(橋木 俊詔, 2006; Chiavacci, 2020).

세 번째 불평등의 의미는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 연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위 계층으로서의 소득이나 자산의 집중(concentration)이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이루어진 불평등 분석으로 상위 1%, 5%, 10%로 전체 소득이나 자산이 얼마나 집중되었는가를 중심으로 불평등을 분석한다(Atkinson & Piketty, 2010; Atkinson, 2015; Piketty, 2013). 소득이 평등하다면, 인구 1%가 차지하는 소득 점유율은 1%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위 1% 소득 점유율이 높은 경우 당연히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집중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직관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피케티는 전체에서 상위소득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이나 재산의 비율을 추적하여, 소득이나 재산의 집중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집단의 소득분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지닌다. 최하위 소득, 중위소득과 중상위 소득으로 어떻게 소득이 분포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극화(polarization)는 소득분포 그래프에서 특정 소득 수준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집단들 사이의 격차와는 무관하게 특정 소득 수준의 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불평등 심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되는 양극화는 소득분포의 양끝(극빈층과 극부층)으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화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 일극화, 양극화, 다극화 등 소득분포에서 어떤 소득 구간으로 사람들이 몰리느냐에 따라서 분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양극화는 중간 소득을 얻는 사람 빈도가 줄어들고, 고소득과 저소득 빈도가 높아지는 변

화를 함의한다. 그리하여 양극화는 중산층이 하층으로 떨어져 규모가 줄어들거나, 중산층 소득이 줄어드는 중산층의 위기와 관련하여 자주 다루어졌다(유팔무, 2005; 이병훈 외, 2008; 한국사회학회 편, 2008).

<표 1>은 네 가지 불평등 지표를 이용하여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지니계수와 p90/p10는 비슷하게 불평등이 줄어드는 추이를 보여준다. 이와는 달리, 상위 20% 소득 점유율은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2년에는 증가하였다. 2015년과 2020년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가 2022년 약간 약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4가지 불평등 측정 방식이 불평등의 서로 다른 차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니계수와 양극화 지수는 매우 다른 불평등 추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1> 네 가지 불평등 지표로 추정된 한국의 불평등 추이 (2010년~2022년)

	2010	2015	2020	2022
지니계수	0.4194	0.3965	0.3712	0.3776
p90/p10	8.1137	7.9305	6.5913	6.2204
상위 20% 점유율	0.4598	0.4418	0.4297	0.4322
양극화	1.59e+03	2.51e+03	3.14e+03	3.02e+03

주: 4가지 지표는 통계청이 수집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양극화 지수는 엘리슨-포스터 지수(Allison-Foster index)로 측정함.

3. 무엇의 불평등인가?

불평등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불평등은 단순하지 않다. 경제적 불평등인 경우에도 임금, 소득, 재산 불평등은 그 대상, 내용, 불평등 형성 기제에 있어서 모두 다르다.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피고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분석 단위는 피고용자 개인이다. 그러므로 실업자, 무직자,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포함하여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1/5~1/4 정

도가 논의에서 제외된다. 2020년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의 77.8%가 임금을 받는 피고용자였다. 임금 불평등 논의에서 전체 경제활동인구 2584만 명의 22.2%인 589만 명에 해당하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은 논의에서 제외된다.

자주 쟁점이 되고 있는 젠더 임금 격차는 노동시장에서 피고용자로 일하는 15-64세 남성과 여성 1995만 명의 임금 격차에 관한 논의이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국 사회 전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젠더 격차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젠더 임금 격차 분석에는 고용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남녀가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

반면, 소득 불평등은 대체로 가구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가구 소득은 가구원 가운데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소득을 합한 소득이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 (15-64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으로 포함된 소득이다. 가구소득 불평등은 한국의 모든 가구가 얻는 1년간 총소득 불평등이다. 흔히 이러한 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이라고 부른다. 가구소득 국제비교에서는 경상소득 중에서도 세금으로 지불한 액수를 제하고 연금과 같이 국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나 가족이 제공한 사적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가처분 소득을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균등화한 가구 가처분 소득(disposable income)을 비교한다. 이것은 소비를 고려한 가구원 1인당 가처분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 원의 가구소득을 얻는 1인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3,000만원 가구소득의 의미는 대단히 다를 것이다. OECD 균등화 지수를 사용하면 (가처분 소득을 \sqrt{n} 으로 나눔, n은 가구원수), 1인 가구 균등화 가처분 소득은 3,000만 원인데 비해서, 4인 가구의 균등화 가처분 소득은 1,500만 원으로 1인 가구 균등화 가처분 소득의 절반에 불과하다. 불평등에 관한 국제통계는 가구원 수를 고려한 균등화 가처분 소득 (equivalised

disposable income)을 사용한다.¹

가구소득 불평등은 인구학적 요인이나 가족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가구 소득 불평등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은퇴 가구나 주부, 학생과 무직자를 포함한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금소득 불평등과 대단히 다르다.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남녀가 결혼하는 동질혼의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결혼을 통해서 고학력-고임금 가구와 저학력-저임금 가구 간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또한, 한국처럼 1인 가구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사회에서 1인 가구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1인 가구의 비율은 1980년 4.8%에서 2022년 35.4%로 높아졌다. 현재 한국 전체 가구의 1/3 이상이 1인 가구다. 1인 가구의 하위 유형인 미혼/비혼 1인 가구, 이혼 1인 가구, 배우자 사별 1인 가구는 모두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이다. 2022년, 사별 1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 가구 비율)은 55.1%로 가장 높았고, 이혼 1인 가구도 35.6%로 전국 평균 빈곤율 15.8%의 2배 이상이었다.

<표 2> 가구 유형별 빈곤율 (2022년)

	전체	2인 가구	3인 이상	1인 미혼	1인 사별	1인 이혼
2022년 빈곤율	15.8%	15.9%	5.5%	17.9%	55.1%	35.6%

주: 통계청(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필자 분석

재산의 불평등은 임금이나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하다. 재산 불평등은 가구를 단위로 하며, 주택을 포함한 재산의 불평등은 소득의 누적된 결과물이거나 상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소득과는 다른 기제를 통해서 형성된다.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재산 불평등은 소득의 누적적 효과가 반영되어 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직업이 재산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은 소득 수준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신용을 기반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건물을 구입하는 것도 중간계급의 내 집 마련 방식의 하나이다. 오늘날 금융의 역할이 더 확대되면서, 직업과 일하는 기업의 안정성을 레버리지로 해서 모기지 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일상화된 주택마련 방식의 하나이다.

재산 불평등은 부동산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인다. 버블 경제인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이 부를 축적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 집이 보유한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간의 재산 격차는 커진다. 반면에, 경기가 하락하여 주택 거래가 줄어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재산 불평등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므로 재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에 비해서 경기 변동에 따라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한 수준을 보여준다. 소득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 복합적인 사회 불평등을 이해하는데 완벽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국처럼 복지제도가 발전하지 못한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가구 단위의 삶의 질 불평등을 포착하는데 더 적합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 분석과 관련하여서 소득이나 자산 불평등뿐만 아니라 주거 불평등이나 신용 불평등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주거 불평등은 주거 부족 상태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일컫는다. 주택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조건이지만, 주거 불안정 집단이 대규모로 존재하

1 균등화 가치분 소득 측정 방법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수정된 OECD 균등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수정된 OECD 균등화 방법은 첫 번째 성인의 경우에는 가중치 1을 부여하고, 14세 이상의 가족의 경우는 가중치 0.5를 부여하고,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0.3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UK, "Chapter 3: Equivalised income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www.ons.gov.uk. Retrieved 2024-12-18.

<표 3> 소득과 자산 불평등 지니계수 추이 (2010년-2022년)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득	.4194	.4369	.3951	.4094	.4019	.3965	.3874	.4070	.3883	.3886	.3765	.3607	.3776
자산	.6369	.6103	.6087	.6121	.5981	.5964	.5821	.5976	.5753	.6043	.6023	.5861	.6148

주: 소득 불평등은 균등화 가구 가처분 소득 지니계수이며, 자산 불평등은 가구 자산 불평등이다. 여기에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고 있어서, 주거 불평등 문제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들이 직 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세계화로 인한 관광객 증가와 더 불어 난민과 이민이 급증한 서구에서 주택 가격의 폭등이 극우 세력 확대의 기 반이 되고 있다. 주택 소유주들이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하여 많은 임대주택을 관광객용 에어비엔비(Airb&b)로 바꾸면서 청년과 저소득 계층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은 더 줄어들었다(Smith & Rapareppore, 2018). 이러한 변화들이 저소득층의 반이민과 반외국인 정서를 더 강화시켰다. 21세기에 급부상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은 주거 불평등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에서 지지를 확대 하고 있다.

21세기 금융 자본주의 발달로 신용 불평등이 새로운 불평등으로 대두되었다(Dwyer, 2018; Piketty, 2013). 이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금융의 지배를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한 사회의 금융 자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중산층과 상층에게 부채는 레버리지로 기능한다. 그리하여 금융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더 많은 경제적 기회와 부를 추구한다. 대조적으로 소득이 낮고 자가 소유 주택이 없는 빈곤층은 신용이 낮아서 금융 자원에 접근이 어렵다. 소득이 낮거나 직장이 불확실한 빈곤층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금융 자원을 활용할 수가 없다. 역설적으로 그들은 다양한 생애 위협에 대응하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지만, 신용이 낮기 때문에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더 어렵다. 금융 시스템에 의해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빈곤층은 이자율이 높은 제2금융권이나 혹은 제3금융권 더 나아가 이자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사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도 새롭게 발견된 불평등이다. 건강과 수명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났다는 운명설은 이미 세균의 발견과 백신의 개발로 인하여 부정되었지만, 1980년 영국에서 <블랙 보고서(Black Report)>가 출간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 관점이 공식적으로 제시되기 전까지 하나의 과학적인 패러다임으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블랙 보고서>는 계급에 따라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달라지고, 상층 계급은 하층 계층보다 더 오래 살며, 소득, 학력, 주거, 고용 등이 건강과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이라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혀냈다. 건강과 수명이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질병과 수명에 대한 인식을 지배해온 생의학적 모형에 충격을 주었다. 건강과 수명에 대한 생의학적 인식은 현대 의료 제도와 의학 교육을 오랫동안 지배해온 패러다임이었다. 그런 점에서 건강과 수명 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은 현대적인 경험적 연구가 만들어 낸 혁신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보수당 정권에 의해서 <블랙 보고서>가 폄하되었지만, 학술적인 차원에서 <블랙 보고서>는 건강과 수명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었고, 건강과 수명이 사회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애치슨 보고서(Acheson Report), 1998>나 <화이트홀 연구(Whitehall Studies), 1967 - 현재>와 같은 다른 보고서들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론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이들 연구들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요소의 복합성을 드러내어 아동기 경험, 가족관계, 커뮤니티, 직장, 정신적인 요소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Marmot, 2022). 건강의 사회적 결정

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정치적, 정책적 개입을 통한 건강 불평등 완화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강영호, 2007; 김명희 외, 2015; 윤태호, 2022; 이창곤, 2007).

또한, 역사학적 연구들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키나 몸무게와 같은 신체 발달의 차이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수명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유아기와 아동기의 가족 경제 수준이 식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Fogel, 1993 및 1994). 또 다른 연구는 키나 몸무게가 생물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위 인구 집단들 사이에 평균 키 차이는 아동기 부모의 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하위 인구 집단들 내의 키 차이는 유전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Tanner, 1994). 그리고 아동기 신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량한 영양 상태는 평생 각종 질병에 노출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의 계급이 당대 부모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의 건강과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세대를 이어서 나쁜 건강과 짧은 수명으로 이어지는 불평등 재생산이 몸을 통해서 재현이 된다. 더 나아가 윌킨슨과 피켓(Wilkinson & Pickett, 2009)이 주장한 것처럼, 불평등이 한 사회 내에서 계급 간 격차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라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도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부유층의 수명도 불평등이 심한 곳에서는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더 짧다는 것이다.

오늘날 생태 불평등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도 학술적으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요인으로 새롭게 부가된 것이 생활 환경의 토대와 차원을 확대한 생태적 환경이다. 개인과 개인 속한 가족의 건강과 수명은 생태환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기후위기는 불안정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재해에 노

출된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빈곤층에게 더 심각한 위험이 된다. 위험을 피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기후위기는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생태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불평등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후위기는 빈곤한 나라와 빈민들에게 건강과 생계에 더 큰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 위기이지만, 주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한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국가나 사람들이 기후위기로 인하여 건강과 생계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다 (Murphy et al., 2018; Oxfam, 2024; Singers, 2019). 빈곤한 나라와 빈민들은 해수면 상승, 해수 온도 상승, 기온 상승 등으로 인한 피해에 더 노출되어 있어서, 건강과 생계 위협을 더 많이 받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농업, 수산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이미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은 인간이 만들어 낸 생태계 변화에 따른 불평등이라는 점에서 생태적 불평등이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4. 불평등의 교차성

현대 사회에서 경험하는 불평등은 구조적인 수준에서 불평등의 틀을 구조화하는 사회적 관계의 복합적인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불평등 현실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을 통해서 보다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미국의 여성 사회학자 킴벌 크렌쇼(Kimberle Crenshaw, 1989)는 복합적인 특권과 배제를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흑인 여성들이 지니는 복합적인 억압을 다루기 위하여 교차성 개념을 제시하였다. 1960~70년대 페미니즘이 주로 백인 여성들에 의해서 주도되면서, 흑인 여성이나 빈곤층 여성들의 경험이 페미니즘 논의에 충분히 반영되

지 못했다. 교차성 개념은 젠더 관계에 기초한 억압과 인종 관계에 기초한 억압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미국 흑인 여성에 대한 억압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이었다. 구체적으로 1974년 미국 GM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사무직 일자리 채용에서 흑인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소송이 제기되었다. 미주리주 지방법원은 1974년 5월 4일 흑인 여성들의 문제를 인종(흑인)과 젠더(여성)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흑인(흑인 남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점과 여성(백인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흑인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렌쇼는 이러한 판결은 흑인 여성들이 직면한 차별의 속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판하고, 흑인 여성이 겪는 차별의 속성으로 교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조적인 수준에서 불평등도 서로 다른 구조적 불평등이 교차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불평등 현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흑인 여성은 흑인이라는 인종적 차별과 여성이라는 젠더 차원의 차별이 중첩된 복합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는 불평등의 교차성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세 가지는 자본주의 경제 관계의 축인 고용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급 관계,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를 토대로 하는 젠더 관계, 피부색을 바탕으로 하는 인종(racial) 혹은 종족(ethnic) 관계이다. 구조적인 수준의 요소들은 단순히 변수가 아니라 특권과 배제의 틀을 만드는 거시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으로 일하는 것은 소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소비와 여가, 자녀 교육과 문화, 건강과 수명에 이르기까지 자본가 계급이나 중간계급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 내에서의 사회화, 교육과 직업 활동, 가족 형성과 출산, 육아, 경력, 건강과 수명들에서 남성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 소수 인종은 사회에서 일상생활에서 배제와 차별을 겪게 되고,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며, 사회적 불안정과 억압을 경험한

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흑인 여성 노동자는 가장 사회적으로 박탈된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는 특권과 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갈등을 만들어 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차하는 불평등은 세 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계급 관계, 젠더 관계와 종족 관계이다. 계급 관계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인 고용-피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한다. 젠더 관계는 전통적인 남성 중심 사회가 보여주는 가부장제 사회 규범과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계급 관계와 젠더 관계는 산업화된 가부장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한국에서 종족 관계는 이주민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상대적으로 새로운 사회적 관계이다. 국적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임금 수준도 달라지고, 사회적 관계 형성과 사회적 평판이나 지위도 다르다. 현재 이주민 노동자가 150만 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서구의 인종 관계와는 다른 종족 관계가 한국 사회 불평등의 새로운 축으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이주노동자의 산재 사망률 연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률이 내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률에 비해서 2.3~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승섭 외, 2024). 이러한 결과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이나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내국인 노동자만큼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요소들이 교차하는 방식과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는 제도를 매개로 한다. 자본주의의 진화를 통해서 계급 관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에는 큰 편차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노동계급 정당의 영향력에 따라서 노사관계는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였다. 북유럽과 같이 노조조직률이 높고, 좌파 정당의 지지가 높은 사회에서 계급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에 노조조직률이 낮고, 좌파 정당이 없는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계급 불평등은 대단히 크다. 또한, 노동조합들과 좌파 정당이 젠더 불평등을 중요한 의제

로 내세우는 경우, 젠더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분절이 불평등에 미치는 정도는 국가의 정책과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아프리카 가나의 경우, 불안정한 자영업인 노점상의 83%가 여성들이며, 남성들이 적은 이유는 남성들은 공식 부문의 피고용자가 되기 때문이다(Reynoso & Vanek, 2024). 남성과 여성의 계급분포가 크게 다르고, 비공식 부문이 큰 가나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비공식 부문 노점상으로 진출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가 정책의 효과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비정규직 영향력 차이에서 잘 드러난다. 2023년 영국의 시간제 노동의 비율은 23.6%로 네덜란드의 37.3%에 비해서 훨씬 낮으나, 영국의 지니계수는 0.366으로 네덜란드의 0.295보다 훨씬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복지의 강화를 결합시킨 네덜란드의 유연안정(flexicurity) 정책 효과에 기인하고 있다(Shin et al. 2023).

5. 불평등의 연계성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은 서로 연계되어 있다.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불평등은 인과적으로 다른 불평등의 원인으로 또한 결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험적인 차원에서 불평등 분석은 복합적인 인과분석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생의학적 차원의 건강 불평등이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요인들은 소득, 교육, 주거 조건, 가족관계, 의료 접근성, 종교 등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사회적인 요인들은 계급, 직업이나 산업, 젠더, 인종 등 보다 구조적인 요인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은 하나의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scientific research program)이라고 볼 수 있다(Lakatos, 1970).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은 건강 불평등이 사회 불

평등과 연계되어 있지만, 사회 불평등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사회발전 단계나 사회정치적 제도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건강에 대한 견해인 생의학적 모형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 모형은 건강 불평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모형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과적인 관계를 탐색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핵심적인 연구 프로그램으로 등장하였다.

사회과학이나 생의학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는 전통적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의 인과론에 관한 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흄은 정신적인(mental) 작용의 결과로서 인과적인 관계를 상정하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보고, 이러한 판단은 반복성, 시간적 선후, 규칙성을 통한 인과관계의 추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통계학적인 분석은 모두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반사실적 모형(counterfactual model)이나 시간적인 변화(temporal change) 등을 고려하여 원인과 결과(효과)를 추론한다. 구조적인 원인을 강조하는 교차성에 관한 논의들도 결과(소득 격차, 취업 기회 배제와 임금 격차)를 통해서 원인(착취, 차별, 배제)을 추론한다. 이것은 심층적인 원인과 현상과의 관계를 제시하는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실험의 한 형태이다(Bhaskar, 1975 및 1979).

핵심적인 이슈는 여러 형태의 불평등이 어떻게 인과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9세기 산업혁명 시기 노동계급의 수명은 농민이나 도시 상층 계급보다 20년 정도 짧았다(Chadwick, 1842; Engles, 1845). 인구과밀 주거, 상하수도 미비, 콜레라와 폐렴과 같은 전염병 창궐, 잦은 산재, 높은 유아 사망률 등으로 거주 지역과 직업에 따라서 평균 수명 차이가 대단히 컸다. 1842년 영국 에드윈 채드윅(Edwin Chadwick)의 영국 노동 인구의 위생 상태 보고서(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에 따르면, 당시

사망 연령이 가장 높은 전문직/상인인 경우에도 맨체스터에서는 38세였던 반면, 루트랜드(Rutland)에서는 54세였고, 노동자 평균 사망 연령도 맨체스터에서는 17세였지만, 루트랜드에서는 38세로 맨체스터보다 2배 이상 높았다(Green et al., 2018). 채드윅은 지역과 직업에 따라서 사망 연령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왜 지역과 직업에 따라서 사망 연령이 달라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불결한 위생, 열악한 거주 환경과 노동 환경이 사망 연령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이 보고서는 1848년 영국에서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제정의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 건강 불평등에 관한 논의들도 보다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윌킨슨과 피켓(Wilkinson & Pickett, 2009)은 소득 수준이 높더라도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건강 불평등도 더 심하다고 주장한다. 소득 불평등이 낮은 스웨덴과 일본에서 소득 불평등이 높은 미국과 영국보다 유아 사망률, 기대수명, 정신건강 등에서 스웨덴이 훨씬 낫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그들은 불평등이 심할수록, 사회적 지위 격차에 대한 예민한 인식,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 낮은 사회적 결속과 생활양식 등의 심리적인 요소들이 신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고혈압, 심장 질환,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고 보았다. 반대로, 불평등이 낮은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높은 신뢰와 사회적 결속을 가져와 각종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을 낮춘다고 보았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인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리사회적(psychosocial) 긴장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또 다시 긴장과 스트레스가 신체적 질환과 정신 질환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의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Pickett & Wilkinson, 2015).

경제적 불평등인 소득 불평등이 건강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인과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보다 더 미시적인 인과적인 과정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소득 불평

등이 심리사회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집단과 불러일으키는 집단 간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기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득분포에서 낮은 위치에 놓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을 가정해서 0.4이라고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비율을 0.1이라고 한다면, 소득 불평등이 긴장이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는 추론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분한 인과적인 설명은 아니다. 인과적 설명이 충분히 되기 위해서 왜 소득 분포상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60%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지도 규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분포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10%는 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규명되어야 한다.

6. 누적적 불평등

누적적 불평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평등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사회적 과정의 결과물이다(DiPrete & Eirich, 2006; Ferraro et al., 2009; Phelan et al., 2010). 사회적인 분업수준에서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에 놓여있는 개인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추가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빈곤층이 된 지 1개월 된 사람과 6년이 된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예를 들어 보자. 1개월 된 사람은 언제 빈곤층에서 벗어날지 알 수 없지만, 빈곤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영향은 6년이 된 사람보다는 훨씬 덜 할 것이다. 두 사람은 구조적 차원에서는 빈곤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누적적 불평등 차원에서는 대단히 다르다. 빈곤층이 된 지 6년된 사람은 장기적인 빈곤으로 인하여 건강이나 여가 생활에서 큰 변화를 겪을 수 있고, 심리적으로 좌절감과 우울증을 경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학령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교육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이전과 이후가 큰 차이를 보였을 것이다. 이

처럼, 누적적 불평등은 시간을 고려하여 불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대두되었다.

누적된 시간이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경우, 세대 간 불평등이 고착화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불평등 체제 내 지위가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는 경우, 세대 간 사회이동 혹은 소득이동이 어려워지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세대 간 소득이동을 연구한 최근 연구들은 세대 간 소득이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라지 체티(Raj Chetty et al., 2017)가 주도하는 연구팀의 연구는 미국의 경우 1940년 이래 30세 자녀 세대의 절대적 소득수준이 30세 때 부모 세대의 소득수준을 넘어서는 비율이 1940년대 90%에서 1980년대 50%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세대 간 소득이동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OECD 수준에서 이루어진 세대 간 사회이동과 소득이동 보고서인 “고장난 엘리베이터? 어떻게 사회이동을 촉진시킬 것인가? (A Broken Elevators?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는 각 회원국에서 하위 10% 소득계층이 평균적인 소득계층으로 상승 이동하는데 무려 4~5세대가 걸린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제시하고, 북유럽 국가들에서 가장 짧게 2~3세대 정도 걸리며,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과 함께 5세대 정도 걸려서 사회이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라고 보고하였다 (OECD, 2018). 한국은 세대 간 교육이동은 활발하지만, 직업 이동과 건강 이동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들 내에서 사회이동이 어렵고, 세대 내에서도 소득이동이 소득계층 하층과 상층 양쪽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득분포에서 하층은 “벗어나기 힘든 바닥(sticky floor)”을 경험하고, 상층은 “벗어나기 힘든 천장(sticky ceilings)”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점점 더 소득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III. 맺음말

이 논문은 불평등 분석을 위한 개념적인 논의와 불평등에 관한 인과분석을 위한 이론적인 논의를 다루었다. 불평등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분석적 함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이 불평등인가를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 불평등 논의는 불평등한 현실을 규명하는데 혼란을 겪게 만든다.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은 불평등의 내용과 대상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불평등에 관한 논의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임금 불평등은 피고용자 개인의 임금 불평등을 다룬 것이며, 소득 불평등은 퇴직 가구나 실업자 가구를 모두 포함한 전체 가구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불평등 논의이다.

불평등 현실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의 교차성과 인과적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다. 교차성은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고, 구조적인 요인들이 교차하는 경우 또 다른 새로운 불평등 현실이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과적 연계는 복합적인 불평등 요인들 사이에서 작동하는 기제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불평등 현실을 바꾸기 위한 제도적 개입이나 대책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분석이다. 교차성과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모두 불평등 현실에 대한 진단과 처방에 필요하다.

불평등과 불평등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기제는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기간에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거치면서 한국의 불평등 구조는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1인 가구 급증)와 같은 사회 변화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한국 사회 불평등에 미치는 이러한 사회변화의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통합적인 분석을 요한다.

그리고 복지 정책과 복지 정치와 같은 요소도 가치분 소득 분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평등 분석에 고려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점은 불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변화에 관한 논의이다. 이 문제는 현재 학술적으로 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나는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생산력이 발전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사회 불평등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1989-1991년 동유럽 국가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전후 냉전체제가 사라지고 전 지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지배하게 되었다. 21세기는 가속화된 세계화가 통합된 시장과 국가 간 지역 간 장벽을 허물어 새로운 풍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탈산업 사회,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 탈근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에서 더 이상 다른 사회 체제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된 사회 체제라는 의미에서 '역사의 종언' 담론까지 등장하였다 (Fukuyama, 1992).

다른 하나는 세계화가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켜, 경제적 불안과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화가 극소수의 천문학적 부와 다수 희생자의 빈곤을 낳아서, 세계화의 희생자들이 기성 정당과 엘리트 정치인을 불신하는 불신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기존 제도권 좌우파 정당들을 거부하는 신생 극우 정당들이 세계화의 희생자들의 지지를 독점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극우 포퓰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유럽 7개국에서 극우 정당이 제1당이 되었고, 나머지 국가들에서도 극우 정당이 제2당이나 제3당으로 부상하였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여 극우 포퓰리즘이 지구를 뒤덮고 있다. 전후 서구 다당제 국가들에서 좌파 정당과 우파 정당들이 분점하였던 정치 권력 구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전통적인 좌파(노동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공산당 등)와 전통적인 우파(기민당, 보수당, 자유당, 인민당 등)의 지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새롭게 등장

한 극우 정당들이 등장하면서, 유럽에서 극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불평등 연구가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변화들이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불평등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정치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차원만이 주로 연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평등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들도 기존의 정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하는 극우 정치의 돌풍을 예상하지 못했다. 세계화의 희생자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극우 정당에 호응하는 현실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또한 극우 정당들이 어떤 방식의 담론과 정치 전략을 활용해서 대중적인 불만을 동원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세계화의 희생자들이 극우 정당의 세계화 비판에 호응하면서 세계 정치가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연구윤리
해당없음.

이해상충선언
본 논문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여지가 없음.

사사표기
해당없음.

참고문헌

- 강영호. (2007). 한국 건강불평등의 현황과 문제점. *보건사회연구*, 40(6), 431-438.
- 김유선. (2022). 국제청 천분위 소득자료 분석(2012-20). *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22-12, 1-17.
- 김명희, 김창엽, 손정인, 이태진. (2015). 한국의 건강 불평등.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승섭, 류현철, 이주연, 강명주. (2024). 이주노동자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막스 베버. (1997). 경제와 사회(박성환 역). 문학과 지성사. (원본출판 1921년).
- 메리 울스톤크래프트. (2020). 여성의 권리 옹호(문수현 역). 책세상. (원본출판 1792년).
- 신광영. (2022). 소득분포 분석의 4가지 개념. 김윤태 편.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대안**. (pp. 21-42). 파주:한울.
- 시몬느 드 보바르. (2009). 제2의 성(이희영 역). 동서문화사. (원본출판 1949년).
- 윤태호. (2022). 한국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김윤태 편. **한국의 불평등: 현황, 이론**. (pp. 259-297). 파주:한울.
- 유팔무. (2005). 중산층의 몰락과 계급 양극화: 1990년대 한국 중산층에 관한 연구. 소화.
- 이병훈, 윤정향, 김종진, 강은애. (2008). 양극화 시대의 일하는 사람들: 한경 미화원에서 번리사까지. 창비.
- 이창곤. (2007). 추적, 한국 건강불평등. 민.
- 장 자크 루소. (2018). 인간 불평등 기원론(주경복 역). 책세상. (원본출판 1755년).
- 칼 막스. (2008). 자본론(강신준 역). 길. (원본출판 1867년).
- 토마스 모어. (2007). 유토피아(주경철 역). 을유문화사. (원본출판 1517년).
- 한국사회학회 편. (2008). 기로에 선 중산층: 현실진단과 복원의 과제. 인간사랑.
- 橋木 俊詔. (2006). 格差社会 何が問題なのか. 岩波新書.
- Atkinson, A. (2015). *Inequality: What Can Be Done?* Harvard University Press.
- Atkinson, A. & Piketty, T. (2010). *Top Incomes: A Glob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 Avent-Holt, D. & Tomaskovich-Devey, D. (2019). *Rising and falling inequalities : a relational approach*. Oxford University Press.
- Bhaskar, R. (1975). *A Realist Theory of Science*. Leeds Books.
- Bhaskar, R. (1979).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A Philosophical Critique of the Contemporary Human Sciences*. Routledge.
- Chadwick, E. (1842). *Report on the Sanitary Conditions of the Labouring Population of Great Britain*. W. Clowes and sons.
- Chetty, R., Hendren, N., Grusky, D., Hell, M., Manduca, R., & Narang, J. (2017). The Fading American Dream: Trends in Absolute Income Mobility Since 1940. *Science*, 356(6336), 398-406.
- Chiavacci, D. (2020). Social Inequality in Japan. In R. J. Pekkanen and S. M. Pekkanen(Eds.). *The Oxford Handbook of Japanese Politics*(pp. 450-470).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owell, F. A. (2011). *Measuring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Crenshaw, K. (1989).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A Black Feminist Critique of Anti-discrimination Doctrine, Feminist Theory and Antiracist Politics.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1989(1), 139-167
- DiPrete, T. A., & Eirich, G. M. (2006). Cumulative Advantages as a Mechanism for Inequality: A Review of Theoretical and Empirical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271-297.
- Dwyer, R. E. (2018). Credit, Debt, and Inequality. *Annual Review of Sociology*, 44, 237-261.
- Engels, F. (1845). *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 Ferraro, K. F., Shippee, T. P., & Schafer, M. H. (2009). Cumulative Inequality Theory for Research on Aging and the Life Course. In R. A. Settersten & J. L. Angel(Eds.). *Handbook of Sociology of Aging* (pp. 89-198). London: Springer.
- Fogel, R. W. (1993). New Sources and New Techniques for the Study of Secular Trends in Nutritional Status, Health, Mortality and the Process of Aging. *Historical Methods*, 26, 5-43.
- Fogel, R. W. (1994). Economic Growth, Population Theory, and Physiology: The Bearing of Long-Term Processes on the Making of Economic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94, 369-395.
- Fukuyama, F. (199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Free Press
- Gini, C. (1912). Variabilità e mutabilità. Tipografia di Paolo Cuppini.
- Green, M. A., Doring, D., & Mitchell, R. (2018). Updating Edwin Chadwick's seminal work on geographical inequalities by occup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197, 59-61.
- Lakatos, I. (1970). *The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m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rmot, M. (2022). Public health and health inequality: a half century of personal involvement. *Journal of Public Health*, 44(1), i23-i27.
- Murphy, C., Gardoni, P., & McKim, R. (eds.). (2018).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Risks and Inequalities*. Springer.
- OECD. (2018). *A Broken Elevators?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 Oxfarm. (2024). *How does climate change affect poverty and inequality?*
- Phelan, J. C., Link, B. G., & Tehranifar, P. (2010). Social Conditions as Fundamental Causes of Health Inequality: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51(S), S28-40.

- Pickett, K. E., & Wilkinson, R. G. (2015).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A causal review. *Social Science & Medicine*, 128, 316-326.
- Piketty, T. (2013). *The Capital in the 21st Century*. Harvard University Press.
- Reynoso, T. R. & Vanek, J. (2024). Street Vendors and Market Traders in 12 Countries: A Statistical Profile, *WIEGO Statistical Brief N. 40*, 1-14.
- Sen, A. (1973). *On Economic inequ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M., & Pappalepore, I. (2018). *Tourism and the Night: Crisis, Capitalism and Urban Destinations*. Routledge.
- Shin, K. Y., Kalleberg, A. L., & Hewison, K. (2023). Precarious work: A global perspective. *Sociology Compass*, 17(12), e13136:1-14. <https://doi.org/10.1111.soc4.13136>.
- Singer, M. (2019). *Climate Change and Social Inequality: The Health and Social Costs of Global Warming*. Taylor and Francis.
- Tanner, J. (1994). Human growth and development. In S. Jones, R. Martin, D. Pilbeam, & R. David, (Eds). *The Cambridge Encyclopedia of Human Evolution*(pp. 98-10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kinson, R., & Pickett, K. E. (2009). *The Spirit Level: Why More Equal Societies Almost Do Better*. Allen Lane.
- Wright, E. O. (2005). Social Class. In G. Ritzer(Ed).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pp. 718-724). Thousand Oaks: Sage.

Research on Social Inequality in Contemporary Society: Concepts and Research Programs

Kwang-Yeong Shin*

Abstract

This paper addresses the concepts and key theoretical issues necessary for studying inequality in contemporary society. Inequality is understood as a product shaped by social structures and institutions, explained through differential access and relational approaches. The major types of inequality are classified into economic inequality, gender inequality, racial inequality, health inequality, and environmental inequality. Structural factors that produce these inequalities operate in a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manner through the intersections and causal linkages of class, gender, and race. The cumulative effects of these systems of inequality hinder inter-generational mobility. Globalization exacerbates inequality, leading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the rise of far-right politics. This study emphasizes that research on inequality must explore complex causal relationships and intersections and ultimately provide academic and policy-oriented solutions.

Keywords: Inequality, Intersectionality, Connection, Cumulative Inequality, Social Determination of Health, Causality

* Department of Sociology, Chung-Ang University (kyshin@cau.ac.kr)